

# 일본인들에게 한국은 과연 무엇인가

「추한 한국인」 등 일본인이 쓴 한국·한국인론 잇달아 출간

지난 11월6일 있었던 호소카와 일본총리와 김영삼 대통령의 한·일 정상회담은 “양국간의 과거지사 양금을 털어내고 새로운 출발”을 다짐했지만, 양국민의 보편적인 정서가 국가간의 공식적인 입장과 일치하느냐에는 부정적인 대답이 압도적일 것이다. 한·일간의 월드컵 예선전이 치러지던 날 일본 응원단에 나붙은 ‘KEROA’가 불러일으켰던 파문이나, 요즘 일본서점가에서 날개돋힌듯 팔려나간다는 「추한 한국인」을 둘러싼 파동 등이 그것을 뒷받침한다.

때마침 우리출판가에도 문제의 그 책이 번역되어 바다를 건너와 시비를 가려볼 수 있게 되었는데, 이와 함께 최근 들어 「서울에 남겨둔 꿈」(건국대 출판부) 「건국록」(범우사) 등 “반일” “혐한”의 뿌리깊은 연원도 밝혀보일 일본인들의 저술도 번역돼 나와 눈길을 끌었다. 또한 얼마전에는 일본여성인 한국어로 시집을 펴내 화제가 되기도 했고, 일전에 나온 「오모니」 「일본인과 한국인 이 점이 크게 다르다」 「천천의 아이들도 벌써 늙었겠지요」 「한국인 당신은 누구인가」 「서울공화국, 환타지아」 등 일본인들이 쓴 한국·한국인에 관한 시집, 수필, 평론집 등에서 일본인들의 또다른 한국관을 엿보게 하여 관심을 모은다.

## 책에서 보는 “혐한” 감정의 뿌리

최근 발간된 「서울에 남겨둔 꿈」은 동학혁명 청일전쟁 등 구한말 격동기의 한국을 당시 일본인의 시각으로 조망했는데, 한국침략을 정당화할 의도적인 인식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내용은 이노우에 기쿠고로의 「漢城

之殘夢」, 스기무라 후카시의 「在韓苦心錄」, 사쿠라이 군노스케의 「朝鮮時事」 등 세편의 글로 짜여져 있다.

「한성지산몽」은 ‘낭인’ 이노우에가 1883년부터 4년간 서울에 체류하면서 직접보고 듣고 경험한 것의 기록이고, ‘재한고심록’은 한국 통으로 알려진 한국주재 일본공사관의 한 외교관이 1894년부터 이듬해 10월까지 한국에서 스스로 체험하고 관여했던 상황을 쓴 것이다. 청일전쟁을 취재하기 위하여 한국에 온 일본 기자가 쓴 ‘조선시사’는 한국의 문화를 천시하고 한국인이 살아가는 모습을 야만시하는 내용이다. 예컨대 여인들이 우물에서 물을 퍼서 이고 가는 모습을 오줌을 퍼가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는가 하면, 한국인들은 방과 번소가 구분되어 있지 않은 공간에 살면서 번기를 물그릇이나 세수대야로 사용하고 있다는 등 우리의 제도나 전통, 문화를 천시하고 멸시하는 논조로 거의 일관돼 있다. 이처럼 일그러진 일본인의 한국관은 오늘의 일본인들의 한국관에도 상당부분 지워지지 않고 이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뒤에 언급될 문제의 「추한 한국인」에 그대로 계승된다.

「서울에 남겨둔 꿈」과 비슷한 시기에 씌어졌던 「蹇蹇錄」도 사료적가치 때문에 동학혁명 100주년에 맞춰 최근 함께 번역되었는데, 이 책은 근대사의 격동기인 19세기말 당시 이토 히로부미 내각의 외무대신을 역임한 무쓰 무네미쓰가 회고록식으로 기록한 외교비망록이다. 저자 무쓰는 “결코 이토에 뒤지지 않는 일제침략의 주구”로 꼽히는 인물. 따라서 그 자신이 실질적으로 담당했던 당시의 외교정략

## 일본인들은 한국·한국인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최근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추한 한국인」 사건은

새삼 이런 물음을 던져보게 한다.

때마침 구한말 日인들이 쓴

한국에 관한 책 두권이 번역되었고,

기자·유학생·시인·작가 등

다양한 일본인들이 한국을 경험한

이야기를 책으로 출간했다. 그 속에

나타난 우리는….

에 대해 쓴 이 기록은 우리에게 “일본의 철두철미한 한국침략사”이지만, 현대 일본외교사에서는 “결코 빼놓을 수 없는 교과서”로 평가 받는 책이다.

「건국록」과 「서울에…」가 구한말 일본의 한국지배를 합리화하기 위한 비방과 치밀한 준비과정을 담은 것이라면, 「추한 한국인」(보람)은 “강한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리고 있는 일본에 “과거 사죄와 과거사 규명을 요구, 그들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유일한 나라”인 한국을 “짓밟을 목적에서 한국인의 이름을 거짓으로 내걸고 일본지식인들에 의해 씌어진 저열한 목적이 깔려 있는 책”(월간조선 8월호 재일교포 황민기씨의 기고)임이 조목조목 폭로돼 커다란 파문을 불러일으킨 문제의 책이다.

일본인에 의해 조작되었다는 유력한 증거들

은 ‘中人’을 ‘주옹인’, ‘상인’을 ‘사인’, ‘현대’를 ‘훈다이’, ‘주리를 틀다’를 ‘…틀타’로 표기하는 등 “서울대학교를 나와 한국의 유력신문 기자로 활동했다”는 화려한 약력의 저자가 썼다고 보기에는 미심쩍은 구석이 상당하는 것. 그래서 유력한 용의자로 꼽히는 이가 얼마전 한국심화회의 초청으로 내한 “일본의 한국통치가 왜 나쁜가”며 뻔뻔스럽게 말하고 간 정치평론가 가세 히데아키. 황민기씨를 비롯한 재일교포들에 의해 지적된 바에 따르면, 「추한 한국인」의 내용은 그의 평론집 「한의 한국인, 삼가는 일본인」과 20군데 이상 표현이 일치하고 있는 점 등이 그 물증이다.

이밖에도 신간이나 기간 책들로는 일본의 SF작가이자 「한국의 도전」을 펴내 화제를 모았던 도요다 아리츠네의 「일본인과 한국인 이 점에서 크게 다르다」(동학사)와, 아사히신문 한국지국장으로 오랫동안 근무했던 구로다가 쓰히로의 「한국인은 한국인이다」(정음사) 교토통신 서울특파원 히라히 히사시의 「서울공화국 환타지아」(청한) 등은 비교적 객관성을 가지려는 일본지식인들에 의해 씌어진 한국의 정치·경제·문화 전반에 걸친 비평서이다. 「한국인의 대인근성과 일본인의 소인근성」 ‘에도시대의 한일관계는 좋았다’ 등 기행문 형식의 「일본인과…」에는 한국과 일본의 감춰진 의식구조와 행동양식이 분석돼 있다.

근년에 나온 몇권의 시집과 수필집은 어떠한 「혐의」도 찾아볼 수 없는 그저 소박한 외국인(일본인)들의 글이다. 일본의 인기있는 대중작가 오다 마코토가 일전에 내놓는 「오모니」(현암사)는 한국여인을 아내로 둔 작가가

## 서울에 남겨둔 꿈

“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日本, 日本人 — 그들은 누구인가?

침략국으로서 인류사에 씻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른 섬의 나라! 그러나 한 세대가 바뀌고 또 한 세기가 저물어가도 日本人들의 한반도를 향한 근원없는 오만과 비아냥거림은 예나 지금이나 변한 것이 없다.

『서울에 남겨둔 꿈』은 19세기 말, 일본의 言論人, 外交官, 浪人들이 순결한 이 나라의 땅과 역사를 밟고 서서 일그러진 우리 민족의 모습을 기록한 책이다.



한상일 역·해설 신국판·392면, 값: 9,800원



당시 지식인들에 의해 쓰여진 세 편의 글은 우리의 제도나 전통·문화를 천시하는 내용으로 일관하고 있다. 오늘날에도 맥을 같이하고 있는 일본교 광신도들의 “한국통치가 왜 나쁜가?”라는 등의 망언과 한치의 차이가 없는 기가 막힌 기록들이다.

(1993. 10. 4)

이 책의 중요성은 19세기 말엽 일본인의 정체를 역으로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데 있다. 또한 역사 속의 비화도 양념처럼 읽을 맛을 느끼게 한다. 1백년전과 마찬가지로 그들의 후손들 역시도 “서울에 남겨둔 꿈”을 그리고 있지 않을까?

(1993. 10. 14)

한국을 모르는 일본인들에게는 부정적인 한국인상을, 한국인들에게는 열등성을 강조하여 우리가 일본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필연성과 당위성을 고취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21세기를 함께 맞이해야 할 시점에서 그들의 실체를 되새김하게 하는 책이다.

(1993. 10.16)

# 일본인의 왜곡된 對韓 의식구조 비판

홍진희 지음 「삐뚜로 가는 일본인」

한국·한국인에 대한 고의적인 평가절하나 매도하려는 목적의 책들이 현재 일본서점가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다 한다. 그것은 현재 국내에도 소개돼 우리에게 분노와 당혹을 감추지 못하게 했던 「추한 한국인」 하나에 국한되지 않고 수 권에 이르는 것.

현재 서울 미림여고에서 일어를 가르치고 교사 홍진희 씨가 지난 여름방학 동안 일본에 갔다가 간다(神田) 서점가에서 그같은 사실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우리나라에도 꼭 알려야겠다”는 필요에서 내용을 발췌·요약, 최근 책으로 펴냈다. 「삐뚜로 가는 일본인」(청담문화사)이란 제목의 이 책에는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추한 한국인」을 비롯해 「일본의 교만 한국의 오만」, 「치마바람」 등 저자가 한국인으로 되어 있어 “일본인들을 가슴 뿌듯”하게 하고, 홍씨의 표현에 의하자면 그래서 더 “불티나게” 팔려나가는 3권의 책을 대상으로 했다.

도쿠마서점에서 발행한 「일본의 교만 한국의 오만」은 일본 평론가 와나타베 쇼이찌와 한국인 오선화 두 사람의 대담내용을 엮은 것. 3월31일 초판을 찍어낸 이래 불과 석달만에 6월 4쇄를 돌파했다. 저자는 이 책을 「추한 한국인」보다 “한 수 높은” 교묘한 작품이라고 평. 내용은 와나타베가 자국의 사실을 긍정적으로 평하면 오선화는 한국의 사실을 비하하고, 와나타베가 한국을 비판하면 오는 일본의 긍정적인 면을 거론하는 식의 한국을 들러리로 앉히고 ‘자화자찬’ 하는



대담형식을 띤다.

「치마바람」 역시 오선화에 의해 씌어졌는데 92년 12월 초 출판된 이래 27쇄를 거듭하자, 이후 「속 치마바람」 「신 치마바람」도 나왔다. 이 책의 내용은 일본에 불법 취업한 한국인 호스텔스 이야기다. 한국출신의 여자 저자가 매춘 여성을 마치 한국의 전형적인 여인상처럼 부각시켜 놓은 내용이다. 저자의 약력 가운데 여자임에도 ‘4년간의 군복무’ 경력이 있는데 “한국에선 육사출신이 대령이 되는데 나는 퍼스트레이디가 되기 위해 육사와 밀접한 여군을 지원했다”는 오의 말 등 곳곳에 한국인으로 보기 어려운 점이 많다고 저자는 지적한다. 저자는 서문에서 “잘못된 지식과 정보로 한일 양국의 선량한 사람들의 의식을 호도하는 자들은 냉혹히 비판되어야 한다”고 적고 있다.

제주해녀였던 한국인 장모(오모니)를 중심으로 역시 뱃사람이었던 장인, 그의 딸 등 일가족의 삶을 진솔하게 그린 연작소설 같은 수필이다. 저자는 “오모니를 좋아하고 재미있는 분이라는 것, 그 이유 때문에 오모니의 세계와 나, 우리 가족에 관해 쓰고 싶었다”고 말하는데, 로터스상 수상자이고 반전운동가이기도 한 작가의 눈에 비친 한국인 장모에 관한 이야기는 그 전체로서 자연스럽게 한일간의 문화비교론이 된다.

일본현대사인회 이사장을 지내기도 했던 사이토 마모루(70)의 「청진의 아이들도 벌써 늙었겠지요」(문학아카데미사)는 총독부 철도국 기사로 한국에서 일하던 아버지에게서 태어나 한강에서 “떡감고 놀고” 2차대전이 한창이던 무렵 경성제대(서울대 전신)에 다니며 한국인 친구들과 어울려 “밤낮으로 전쟁과 민족에 대해, 인간과 자유의 존엄에 대해” 열변을 토해냈던 정서적으로 한국과 친밀했던 시인의 시집이다. “시 속에서 내가 ‘산’이라 하면 그 이미지는 북악을 가리키고 ‘강’이라 하면 그것은 한강을 말합니다” 하고 시인이 밝히듯, 또한 역사 김광림(시인)씨가 “너무도 한국적인, 한국인의 생리를 지닌 발상”이라고 평하듯 그의 작품에는 일본 군국주의 식민지하의 우리 겨레와 풍토에 대한 깊은 연민과 휴머니티가 깔려 있다.

최근 국내 대표적인 문학출판사인 민음사에서 출간된 일본인 사이토우 마리코의 시집 「입국」은 “범상함을 넘는 수준”으로 관심을 끌었다. 「오모니」의 작가처럼 한국과 친족의 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청진의 아이들…」의

사이토 마모루처럼 성장기의 20여년을 보내어 펠레야 펠 수 없는 추억이 배어 있는 것도 아니며, 또한 「추한 한국인」의 저열한 목적성도, 저널리스트의 한국을 알고자 하는 직업의식도, 아무것도 없이 그저 미국이나 프랑스, 중국이나 인도에 가듯 일본 밖의 ‘외국’인 한국에 와 그 나라말을 배우고 그 언어로 시를 지은 일본의 신세대 젊은이다.

평범한 한 일본여자유학생의 6년반에 걸친 한국체험기인 「신촌스케치」(히라카 유니/서울포럼)도 강의실에서 하숙집에서 목욕탕에서 마주친 한국친구들에 대한 ‘애정과 추억이 어린’ 글이란 점에서 對韓觀을 찾기는 어렵다.

## 무심과 편견 등 다양한 일본인의 對韓 정서

이 수권의 책들은 시기적으로 100년여에 걸쳐 있고, 저자의 군도 국가관료에서부터 작가, 기자, 시인, 정치평론가, 대학생에 이르기까지 제각각이다. 그리고, 88올림픽을 전후해 일본에서 불었던 ‘한국붐’ 때 출판되었던 한국·한국인에 관한 책의 극히 일부만 번역돼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일본인들의 한국에 관한 보편적 정서와 인식의 변천사를 국내에 번역돼 있는 것으로만 파악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다만, 그저 단순한 ‘외국’으로 인식하는 보통의 일본젊은이들의 정서와는 달리, 기성세대들의 “협한” 감정이 그대로 유효히 우리를 자극한다면 그로인해 “상처받은 민족적 자긍심에 불을 붙여 국제화 세계화의 大流에 합류시켜 실력으로 脫일본”(김대중 조선일보 주필)하는 것이 「추한 한국인」 같은 류의 독후감이 되어야 할 것이다. — 정혜옥 기자

## 인식의 해석학 : 인식의 철학 I

O.F. 볼노오 지음/백승균 옮김/6,000원

저자는 선이해와 새로운 것의 경험은 상호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 양자의 연관성을 해석학적 이론만이 생생하게 서술해 낼 수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전통적인 인식 이론의 방식에서 벗어나 해석학적 인식 이론의 정립을 주장한다.

## 논리적 관점에서

W.V.O. 콰인 지음/허라금 옮김/5,500원

이 책에 실린 아홉 편의 엄선된 논문은 콰인 철학의 핵심을 이루는 논리 및 언어 철학적 입장, 즉 분석적 진술이라는 개념에 관련된 의미의 문제와 보편적 문제와 관련된 존재론적 개념의 기준이라는 논리 철학적 문제를 다룬다.

## 중국 병법의 지혜

김기동 지음/10,000원

태공, 손자, 묵자는 물론 손문, 장개석, 모택동에 이르기까지 중국 역대 병법가들의 전략 진술은 물론 지도자의 철학, 도덕성, 치민 사상 등을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어 동양철학의 묘미와 중국인의 삶의 지혜를 배울 수 있다.

## 유교와 기독교

줄리아 칭 지음/임찬순, 최효선 옮김/6,500원

유교 전통에 나타나는 중요 주제와 기독교의 가르침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라는 두 종교의 비교 연구를 통해, 유교의 종교적 측면에 관심있는 사람과 신학적으로 자신을 이해하고자 하는 기독교인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철학서적 전문출판 **서광사**

130-072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 2동 119-46 대표전화 924-6161 팩스밀리 922-4993